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7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8월 2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범 심종두, 김주목 징역 1년2개월!

유성 노조파괴범 심종두-김주목 법정 구속!

유성기업을 비롯해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브로커로 활동한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인노무사로서 일반인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도 노동조합법과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조파괴범은 반드시 처벌된다!

창조컨설팅은 한동안 노조파괴 브로커로 악명을 떨쳤다. 우리지부의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의 발레오만도를 비롯해,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여러 기업에 자문하며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이들의 노조파괴로 10년동안 고통받은 전국의 노동자들을 생각

한다면 징역 1년 2개월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검찰은 2012년에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도 3년 지나 2015년에야 기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유성기업 대표이사,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이 모두 노조파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는 것이다. 노조파괴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법정구속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아직 안끝났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재판은 아직도 직장폐쇄기간 임금체불 건과 2차 부당해고 건이 진행 중이다. 이미 법정구속됐던 유시영 회장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또다시 구속되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시영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유성지회 동지들이 8월 30일 천안법원 앞에서 오체투지를 벌인다. 끝나지 않은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의 처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인텍 굴뚝농성 300일 문화제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의 굴뚝농성이 9월 7일(금) 300일을 맞는다. 서울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75미터 굴뚝농성이 시작된지 300일이 되었지만, 사측은 지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투쟁에 승리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300일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의 계열사다. 스타플렉스는 한국합섬을 인수해 사명을 스타케미칼로 바꾸고 공장 가동 1년8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당시 스타케미칼지회가 408일간 공장 안 굴뚝 고공농성을 벌이며 고용, 단협 승계 등을 약속받고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스타플렉스 자본은 파인텍이라는 새 법인을 만들어 약속 이행을 하는 척만 하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이름만 남은 회사를 만들고 기계마저 빼버렸다. 스타케미칼지회 당시 고공농성으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 주요 일정 *

- ☐ **충북 조례제정 서명운동 기자회견**
8/27(월) 11:00 충북도청
- ☐ **창구단일화 폐기! 민주당 1인 시위**
8/29(수) 12:00 대전(보수) 충북(JCC)
- ☐ **유성지회 오체투지**
8/30(목) 15시 천안법원 앞
- ☐ **충청권 노안활동가 수련회**
8/31(금)~9/1(토)
동학사 ‘산너머남촌에는’